

도서관인의

窓

## 눈 내리는 날의 斷想

엄 갑 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 수필가)

이 따금씩 찬바람이 괴성을 지르며 도서관의 높은 건물 벽을 때린다. 그때마다 창문이 아프게 떨며 신음소리를 낸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 사이 흰 눈발이 바람에 휘날려 춤추며 내리고 있다.

도서관의 넓은 정원에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한 겨울 풍상을 이겨내느라 비명을 지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중에도 정원 끝머리 뜰에 수액이 말라버린 가지들을 슬하게 달고서 우람한 체구로 표표로이 서 있는 한 그루 노목(老木)의 비명소리가 더욱 애처롭게 들린다. 더욱이 그 나무에는 까치가 날아가 버린 빈 까치집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어 더욱 외롭고 추워 보인다.

그러나 그 추위 속에도 넓게 뚫린 길에는 도서관을 향하여 남녀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금이라도 찬바람을 피해 보려고 어깨를 움크리고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들이 종종걸음이지만 늠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눈 내리는 날 도서관을 찾아오고 있는 씩씩한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무한한 환희와 감동에 젖어든다. 눈부신 축복이 그들 가슴속에서 보이고 우렁찬 희망의 나팔소리가 내 가슴속에서 출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억(回憶)에 잠겨 본다.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바람이 불고 있는 창 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그때 방 노크소리와 함께 사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낯선 사나이가 들어왔다.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허수룩하고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지와 정열이 가득 찬 환희에 넘치는 밝은 얼굴이었다.

“관장님을 좀 뵈고자 하는데요”

“제가 관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인사를 서로 나눈 후 그가 한 말은 대충 이러했다.

그는 청주 근교에 있는 ××중학교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형인데, 겨울방학을 맞아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매일같이 아침식사를 끝내면 가방을 둘러메고 도서관에 간다면서 나가곤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 가는지, 또 도서관의 학습분위기는 어떠한지 등이 궁금해서 뒤쫓아 왔다는 것이었다.

그가 아들의 뒤를 밟아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찾아드니, 자기 아들이 4층에 있는 일반 열람실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었다. 자기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넓은 방에 가득 자리를 메운 학생들이 조용하게 공부하더라는 것이었다.

자기도 빈 자리에 앉아 한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 넓은 방에 그 많은 학생들이 떠들지 않고 참으로 조용하게 제 공부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도 기뻐서 관장님을 줌 뵈고 가려고 이렇게 찾아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도서관을 찾아와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고 또 물었다. 하루에 약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이 도서관을 찾아와 공부를 한다고 말하였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즈음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들어보면 매일 같이 각 종 사회 범죄, 사고들로 얼룩져 있어 금방 이 나가라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렇게 도서관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일이천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탱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서관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고 떠났다.

나는 그 당시 도서관 발령을 받고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개월에 걸친 사서교육을 받았다. 사서자격증을 따고서 도서관에 대한 열정에 한창 부풀어 있을 때였다.

버틀러(P.Butler)는 '도서관이란 모든 자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라고 했고 랑가나단(S.P.Ranganathan)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결국 도서관은 「만인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해야한다. 공공도서관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의 공급처가 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필요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그 나라는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관을 마르지 않는 정보의 샘터, 진리 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즐거운 배움터, 첨단 정보사회를 헤쳐 나아 갈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을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때 그렇게 불쑥 나타나 격려를 해주고간 그 사람을 나는 도서관이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생각하곤 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마다 그는 위기감에서 안정감을 갖게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광채 같은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었다. 확실히 그 사람은 내게 천군만마(千軍萬馬)의 원군이였다.

그 동안 나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미약한 능력이지만 항시 그 사람이 바라던 바를 생각하면서 초기의 정신으로 도서관운영에 전력해왔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도서관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책을 발간하였다고 자랑하면서 발간한 책을 들고 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어떤 가정주부는 책을 통해 지적인 욕망을 채우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정신적 교감을 나누면서 보람찬 인생을 도서관에서 일구어 간다는 도서관 예찬론을 신문에 발표하여 우리에게 힘을 솟게 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소기 하던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또 어떤 이는 도서관

에 있는 많은 책을 읽고 소설가가 되었다고 도서관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주고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때마다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가슴을 울렁이게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한 자괴감이 가슴을 치기도 했다.

이제 머지 않아 나는 공직을 마감하고 이 도서관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겨울은 내게 공직 자로써 마지막 맞는 겨울이 될 것이다. 푸른 꿈과 열정을 가슴에 담고 달려 온 지 어언 36년, 긴긴 세월이었다. 뒤돌아보면 긴긴 낮선 동굴을 힘들게 헤매온 듯한 초조와 긴장의 세월이었으나 그래도 마지막 불빛을 밝히면서 힘을 내야 한다. 떠나는 그날까지 3년 전 도서관을 찾아와 격려해 주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도서관장으로 남기 위해 내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다짐해 본다.

창 밖은 아직도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정월 끝머리 말라버린 가지들을 슬하게 달고서 표표로이 서 있는 한 그로 노목이 더욱 비명을 질러댄다.

저 추위 속에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아직도 줄을 잇고 있다. 꿈들이 희망들이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음이 보인다. 나는 그들에게 생의 철학자 니이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에 있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시내가 있고, 진흙도 있다. 걸기 좋은 반반한 길만이 아니다. 먼 곳으로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 것인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뒸다」

“圖書館文化”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지면으로

「도서관인의 **산문**」이란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한

주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우리 협회 “圖書館文化”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곳/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

주소(138-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화 02-535-4868/팩스 02-535-5616

e-mail:klanet@hitel.net/담당자:박경아〉

## 原稿募集

〈圖書館文化〉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5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2. 보내실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文化" 편집실  
전화 : (02)535-4868 FAX : (02)535-5616  
PC통신 (나우누리) klal (하이텔)klanet  
인터넷메일 klanet@hitel.net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

## 謹 賀 新 年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년 새해아침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두영